

조선대 채진서·순천대 강수빈 '금 명종'

회장기 양궁...광주여대 김민서 은메달 2

조선대 채진서가 올림픽 제패 기패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채진서는 25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대학부 릴리피케이션 70m 경기에서 341점을 쏘 김필중(한체대)·최현택(서원대)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채진서는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올해 조선대에 입학, 광주 남자 양궁 기대로 떠올랐다.

힘이 좋고 집중력이 뛰어나 팀 선배 이진용·김정훈(이상 4학년)을 이을 차세대 주자로 꼽힌다.

여자대학부에서는 강수빈(순천대)이 60m에서 347점으로 금메달, 5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서(광주여대)는 70m와 30m에서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김민서는 70m에서 341점을 기록하며 나만지(계명대·343점)에 이어 2위에, 30m에서는 356점을 쏘 임시현(한체대)에 이어 임하나(계명대), 김나리(한체대), 김서영(경희대)과 함께 공동 2위에 자리했다.

한편,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를 겨냥해 컨디션 조절 중인 '도쿄올림픽 3관왕' 국가대표 안산(광주여대)은 이번 대회 출전하지 않았다.

26일에는 남녀대학부 개인전과 혼성전이 준결승전까지 열리고 27일에는 개인·혼성 결승전과 단체전 경기가 이어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채진서(오른쪽)와 은메달을 수확한 김민서.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탐보슈터' 문경은 전 SK 감독 KBL 경기본부장에 내정

'탐보슈터'로 시대를 풍미한 국가대표 출신 슈터 문경은(51·사진) 전 프로농구 서울SK 감독이 KBL 경기본부장에 내정됐다.



25일 프로농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KBL은 신임 경기본부장에 문경은 전 감독을 내정하고 9월 1일로 예정된 임시 총회에서 문경은 신임 경기본부장 선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광선상고와 연세대 출신 문경은 경기본부장 내정자는 실업 삼성전자와 프로 삼성, 전자랜드, SK 등에서 선수로 뛰었으며 2011년부터 SK 지휘봉을 잡아 2017-2018시즌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이끌었다.

국가대표로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문 내정자는 한국농구 슈터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스타 선수 출신이다.

2020-2021시즌 이후 SK 사령탑에서 물러난 그는 지난해부터 KBL 기술위원장, 대한민농구협회 경기력향상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다수의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양현지, 전국핀수영대회 '4관왕'

단체전에선 대회신기록 우승

남고부 김정훈 짝핀 50m 금

광주체고 금 5·은 1·동 2 획득

광주체육고 수영부 양현지가 전국핀수영대회 4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체고 수영부가 최근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수영장에서 열린 제34회 전국중별핀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 5개·은 1개·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양현지는 여고부 개인종목 표면 100m에서 42초04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표면 50m에서도 19초01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단체전에서 계영 800m에서 6분29초20의 대회신기록을 견인했고 계영 400m(2분51초94)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해 대회 4관왕을 차지했다. 우수선수상도 받았다.

양현지는 핀수영의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차지하는 등 기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보인 광주체고 수영부.

(광주체고 제공)

김정훈은 남고부 짝핀 50m에서 금메달 1개를 수확했으며 황윤형이 표면 400m에서 은메달 1개, 이세은이 짝핀 100m에서 동메달 1개를 추가했다.

광주체고 김재안 교장은 "양현지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안세영 "부모님 앞에서 승리해 기쁘다"

발목 부상 치료 미루고 대회 출전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 8강 진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한국 배드민턴 여자단식 최강자 안세영(20)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경기장에 초대했다.

어머니가 국제대회에 동행한 적도 했지만, 부모님 두 분과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에 동행한 것은 2020년 3월 전영오픈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그만큼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자신감이 증대해 있었다.

세계 랭킹 3위 안세영은 25일 미국의 베이원 장(랭킹 16위)을 2-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8강에 올랐다. 안세영이 2세트에서 42점을 내는 동안 상대에게 내준 점수는 절반 수준인 22점에 불과했다. '파죽지세'의 기세였다.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에 나선 안세영은 압도적인 승리의 기쁨을 오랜만에 동행한 부모님과 함께 나눴다.

그는 "상대 선수가 예전에 엄청나게 잘했던 선수여서 특히 긴장을 많이 했다"면서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더 많이 긴장했는데 경기를 잘 풀어진 것 같아 기쁘다"고 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부모님과 국제대회에 동행할 정도로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한다.

2020년 전영오픈 때는 부모님 앞에서 단 1승도 올리지 못하고 예선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언제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 있었다.

안세영은 "2020년 전영오픈 때도 부모님이 보러 오셨는데 1승도 못하고 탈락했다. 이번엔 1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다"며 "전에는 마음을 졸이고 경기를 보셨다면 이번에는 편한 마음으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말레이시아 마스터즈 대회에서 우승한 뒤 40여 일 만에 국제대회에 출전한 안세영은 당시 경기 도중 다친 발목이 완벽하게 낫지 않은 상태다.



안세영이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여자단식 16강전에서 승리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몸 상태이지만 세계개인선수권대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치료를 미루고 대회 출전을 강행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대회에서 발목 부상이 있었다. 아직 다 낫지 않았고 병원도 못 갔다"면서 "이번 세계개인선수권대회를 잘 마무리한 다음 편한 마음으로 병원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26일 중국의 한웨이와 왕즈이의 16강전 승자와 8강전을 치르는 안세영은 욕심을 버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세영은 "제가 중국 선수들한테 좋은 기억이 많지 않다"면서 "이길 생각을 하면 욕심이 나서 잘 안 될 때가 많다. 8강전은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LIV 골프 닦아가는 PGA 투어

특급 선수 20명에게 '1억 달러 보너스' 분배키로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의 후원을 받는 LIV 골프에 맞선 미국프로골프(PGA)투어의 대응책은 LIV 골프 닦아내는 꼴로 드러났다.

PGA 투어 제이 모너헨 커미셔너는 25일(한국 시간) 투어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의 핵심은 특급 선수에게 '돈다발 특전'을 주는 것이다. 특급 선수 20명을 추려 1억 달러의 보너스를 나눠준다.

올해까지는 페덱스컵 랭킹 10위 이내 선수들에

게 5000만 달러를 나눠줬는데, 앞으로 인원과 금액을 두 배로 늘린다.

또 다른 핵심은 특급 대회다.

4대 메이저대회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과 3대 인비테이셔널, 플레이오프 3개 대회 등이다. 신설하는 특급 대회 4개를 보태 17개 특급 대회의 총상금은 2000만 달러 안팎이다.

LIV 인비테이셔널 대회와 비슷한 상금이다.

특급 선수는 이 특급 대회에 3개 대회를 더해 연

간 20개 대회만 출전하면 된다. 특급 대회 출전은 의무다. 나머지 대회는 선수 입맛대로 나갈 수 있다.

PGA투어 47개 대회 가운데 특급 선수가 출전하는 '특급 대회'와 특급 선수는 거의 출전하지 않는 '일반 대회'로 나뉘는 셈이다.

특급 선수는 PGA투어에 머물면서도 LIV 골프로 옮기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급 선수가 아니라도 최소 50만 달러의 수입은 보장해준다. 컷 탈락한 선수에게는 5000 달러의 위로금도 주기로 했다.

모너헨 커미셔너는 "시즌 내내 20개 이상 대회에서 최고 선수들이 경쟁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7관 씨네케를 한산: 용의 출현, 탐간: 매버릭, 미니언즈, DC 리그 오브 슈퍼퍼 히어로즈

8관 씨네케를 늑, 비상선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11시 음악산책 독일음악의 성지, 라히프치히

일시: 2022. 8. 29. (월)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 I 김동현 무반주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2022. 9. 5. (월)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